

陶淵明詩에 나타난 自適의 意味*

尹 壽 榮**

<目次>

- | | |
|---------------|--------------|
| I. 서 언 | V. 체념 속의 자적 |
| II. 자적에 대하여 | VI. 자연 속의 자적 |
| III. 우정 속의 자적 | VII. 결 론 |
| IV. 은둔 속의 자적 | |

I. 서 언

전원시인 陶淵明, 그의 시는 屈原의 뒤를 이어, 그와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굴원이 死六臣과 유사한 인물형상이면, 도연명은 生六臣과 유사한 인물형상이다. 굴원이 불의한 세상에 항거하다 산화해간 시인이라면, 도연명은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강 건너 불구경이라도 하듯이 쓸쓸하게 체념하면서 살아갔던 시인이다. (도연명은 은둔을 택하여 귀거래한 이후에도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갈등과 고뇌를 부단히 겪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固窮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선에서 현실적인 생을 유지시켜나갔던 인물이다.) 그 둘 모두 세상에 대한 한탄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 같이 曠世詩人이었지만, 굴원에 비해 도연명은 상대적으로 완곡하고 온화한 기조를 유지한다고 생각된다.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도연명은 굴원처럼 정면으로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치며 항거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하는 대신, 난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냉랭한 시선으로 세상을 응시하며 자적하는 삶을 살아갔다. 자적은 그의 인생이라는 강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張翰은,

“人生은 자적하는 뜻을 얻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人生貴得適志)”¹⁾

라고 말했는데, 이는 도연명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는, 그의 전 생애에 일관되는 주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小尾郊一은 《中國의 隱遁思想》가운데서,

“도연명은 최초의 전원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가 자연계에 있는 정경 가운데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선언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老莊思想에 근거하는 진리이며, 모든 자연 가운데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선언하였다는 것은 극히 주목할만한 점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후 중국인의 자연관에 있어서 하나의 전통을 이루면서 전해 내려가게 된다.”²⁾

라고 말했다. 도연명은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자연이 허여하는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비록 물질의 궁핍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무진장한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 《晉書》 卷92, <文苑傳·張翰傳>: “장한은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문득 고향 뒤편의 즐나물·순채국·농어회가 생각이 났다. 그 생각이 간절해지자, ‘인생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것이 자적하는 삶이다. 어찌 고향을 떠나 수천리 타향에서 관직에 묶여 명리와 작위만을 바라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고는, 마침내 수레를 준비하라고 일러 고향으로 돌아가버렸다.(翰因見秋風起, 乃思吳中菰菜、蓴羹、鱸魚膾, 曰: 人生貴得適志, 何能羈宦數千里以要名爵乎. 遂命駕而歸.)”

2) 小尾郊一 著, 拙譯, 《中國의 隱遁思想》(春川: 江原大學校出版部, 2008), 15쪽.

본고에서 필자는 도연명시를 중심으로 그 가운데 나타난 자적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체로 도전과 도피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도전은 먹이를 구하는 작업이고, 도피는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다.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생명체의 한계와 그러면서도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또 하나의 생명체의 한계 사이에서 모든 생명체는 갈등하면서 생명을 유지해나간다. 도연명 시도 이와 같은 갈등과 유지를 전제로 구성되고 있다. 그에게 있어 도전은 관료사회로의 진출이다. 위험하되 부귀가 허여된다(물론 이는 현실적(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반대급부이고, 이념적으로는 ‘兼善天下’ 곧 ‘治國平天下’의 꿈을 이룰 수 있는 場이 펼쳐지게 된다). 그에게 있어 도피는 관료사회로부터의 도피 곧 은둔이다. 안전하되 빈천이 뒤따른다. 이 양자 사이에서의 회의와 갈등이 도연명시 전반에 흐르고 있다. 도연명은 이를 자적의 추구로 해결하고자 했고, 결국 그는 도전보다 도피를 선택했다고 생각된다.

도연명시에 나타난 자적은 그 자체로서 은둔의 목적일 수 있고, 그 결과로 얻은 수확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隱遁自適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고 무리 없이 들리는 이유가 된다. 자적은 쉽게 말하면 마음의 平和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지고한 경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어서 도연명은 은둔을 실천함으로서 자적을 추구하고자 했다.

II. 자적에 대하여

국어사전은 ‘자적’에 대하여, ‘무엇에 구속됨이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껏 즐김.’³⁾ ‘무엇에 속박됨이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즐김.’⁴⁾ ‘마음 내키는 대로 유유히 생활함’⁵⁾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구속이나 속박

3)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서울: 삼성이데아, 1989), 2,800쪽.

4) 《금성관 國語辭典》(서울: 금성교과서, 1994), 1,146쪽.

으로부터의 탈피가 자적의 전제가 되며, 마음 내키는 대로 주체가 바로自我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 《中文大辭典》은, 자적에 대하여, “유연히 한적하게 지내며, 그 즐거움을 스스로 얻음을 말한다.(謂悠然閒寂而自得其樂也.)”⁶⁾라고 풀이한다. 유연은 멀고 아득하다는 초현실적 의미이고, 한적은 한가롭고 적막하다는 의미이다. 자득기락은 그 즐거움을 얻는 주체가 자아임을 전제로 한다. 요컨대 자적은 분명한 현실세계, 특히 관료세계에서 추구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그 이면에 담아두고 있다.

자적은 老莊思想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莊子》는 ‘자적의 해설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자적의 경지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다. <齊物論>편에 보이는,

“사람이 습하게 자면 허리 병이 나서 한쪽이 못쓰게 되지만,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나무에 있으면 무서워 떨게 되는데, 원숭이도 그러한가. 셋 가운데 어느 것이 올바른 거처를 아는가. 사람은 고기를 먹고, 사슴은 풀을 먹으며, 지네는 뱀을 맛있어 하고, 올빼미와 까마귀는 쥐를 좋아한다. 넷 가운데 어느 것이 올바른 맛을 아는가? 원숭이는 獼狙로 짝을 삼고, 순록은 사슴과 교미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함께 헤엄친다. 毛嬙과 麗姬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들이지만, 물고기가 보고는 깊이 숨어들고, 새가 보고는 높이 날아오르며, 순록과 사슴이 보고는 급히 달아난다. 넷 가운데 어느 것이 천하의 올바른 미모를 아는가?”⁷⁾

라는 기록은, 자적이 각 개체별로 다른 것임을 설명한다. 자적에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없으며, 각 개체별 자아판단에 의해 자적여부가 결정된다.

5) 《東亞漢韓大辭典》(서울: 동아출판사, 1989), 1,491쪽.

6) 《中文大辭典》(臺北: 中華學術院, 1976), 1,191쪽.

7) 莊子 著, 金昌煥 譯, 《莊子》(서울: 을유문화사, 2010), 102-104쪽.

《莊子, 齊物論》篇: “且吾嘗試問乎女. 民濕寢則腰疾偏死, 鯀然乎哉. 木處則惴慄恟懼, 猿猴然乎哉? 三者孰知正處? 民食芻豢, 麋鹿食藿, 螂蛆甘帶, 鴟鴞嗜鼠, 四者孰知正味? 猿獼狙以爲雌, 麋與鹿交, 鯀與魚游, 毛嬙麗姬, 人之所美也, 魚見之深入, 鳥見之高飛, 麋鹿見之決驟, 四者孰知天下之正色哉?”

村上嘉實은 난세와 노장사상과의 관계, 그리고 노장적 자유 및 자적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노장사상은 원래 난세의 철학으로 태어났다. 사람은 난세에 처하여 강렬하게 자신을 내세우면, 곧 생명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때 하나의 혈로를 뚫는 방법으로서, 먼저 대상 및 환경에 隨順하는 태도가 취해진다. 그런데 이 수순의 가운데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자유의 경지가 발견되었다. 인간이 커다란 傷害에 갑자기 부딪치게 되었을 때, 스스로를 虛하게 함으로서 그 대상에 패배하게 되면 오히려 거대한 힘이 부여된다. 이 수순에 의하여 참된 자유가 생겨남을 알았던 것이 노장사상의 萌芽이다. 그런데 수순에 중점을 두었을 때는 노자의 자연으로 되고, 자유에 중점을 두었을 때는 장자의 자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장자의 자적도 노자의 자연 없이는 태어날 수 없었다.”⁸⁾

인생에서 자적처럼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없다. 마음의 평은 곧 자적이 사라지면 모든 행복의 요건들도 빛이 바래게 된다. 가난하되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부유하되 마음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곧 자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村上嘉實은 같은 책에서 自適主義라는 용어를 언급하면서,

“자적주의는 六朝에 있어서, 특히 東晉 중기에 나타나게 된 정신이며, 정서를 숭상하고 산수자연을 애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성을 존중하고 진술을 즐거워하며, 기지를 사랑하고 청담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戴逵의 間遊贊은 莊子の 逍遙遊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間遊는 노장적인 自由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⁹⁾

라고 말했다. 이 자적주의는 육조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

8) 村上嘉實, 《六朝思想史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76), 347쪽.

9) 村上嘉實, 같은 책, 349쪽.

나의 이즘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 정도로 육조는 자적의 경지를 갈망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도연명시에 있어서도 강렬하게 추구되고 있다. 그는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 시대의 역경에 철저히 수순했고, 그 수순을 통하여 자유와 자적을 추구, 터득했다. 또한 자적에는 자적의 주체가 품는 애락의 정서가 강렬한 색채로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逸話가 있다.

“子猷 王徽之가 山陰에 살고 있었는데, 큰 눈이 오는 밤에 잠에서 깨어 房門을 열고 술잔을 기울였다. 四方을 바라보니 皎皎하여 서성거리다가 左思의 <招隱詩>를 읊는데, 갑자기 戴安道가 생각났다. 當時에 戴安道는 剡溪에 살고 있어, 卽時 가벼운 배를 타고 戴安道를 찾아 나섰다. 밤을 새워 겨우 到達하였는데 門에 이르러서는 들어가지 않고 바로 돌아섰다. 누가 그 까닭을 묻자 王子猷가 對答하기를, “내가 本來 興에 겨워 왔다가 興이 사라져 돌아가는 것이니, 어찌 꼭 戴安道를 만나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¹⁰⁾

여기서 말하는 興이야말로 자적의 경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체가 된다. 순간적인 흥은 난세문인의 及時行樂의 정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Ⅲ. 우정 속의 자적

도연명은 전쟁과 기근으로 점철되는 난세 속을 살아갔다. 그는 난세현실을 응시하면서, 이를 슬퍼하고 고뇌하는 심경을 고백한 시구들이 보이는데, “도가 사라진지 천년이 다 되어간다.(道喪向千載)”¹¹⁾ “시운의 기울어져 감을 하릴없이 바라보고만 있다.(空視時運傾)”¹²⁾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도연명

10) 김육 저, 허성도·김창환·강성위 역, 《유원총보역주》(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91쪽.

11) <示周續之祖企謝景夷三郎>詩.

은 이와 같은 각박하고 삭막한 난세현실 속에서도 더욱 사람다운 사람들을 그리워했으며, 그는 심지어 사람이 그리워 이사하기까지 했다. 우정에 대하여 《修身古訓》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추위와 더위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다고 해서 비단옷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귀천은 무상한 것이다. 갑자기 고귀해졌다고 해서 옛 친구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¹³⁾

고귀한 우정은 빈천과 무관하게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우정을 도연명은 간절히 염원했고, 그 우정 속에서 자적을 추구했다. 이제 도연명이 추구한 그런 우정에 대하여, 먼저 龐參軍과의 우정을 노래한 사언시 <答龐參軍> 제2수와 같은 제목의 오언시 <答龐參軍>, 그리고 곤궁의 극한상황 속에서 걸식하러 갔던 도연명과 주인 사이의 우정을 노래한 <乞食> 등의 작품들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答龐參軍> 第2首

人之所寶, 尙或未珍. 不有同好, 云胡以親.
我求良友, 實觀懷人. 歡心孔洽, 棟宇惟隣.¹⁴⁾

세상 사람들이 보배라 여기는 것을,
나는 그래도 별로 진기히 여기지 않는다.
만약 서로 좋아하는 바가 없다면,
무엇으로 친밀하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절실하게 훌륭한 벗을 구하고 있다가,
마침내 마음속 깊이 찾아 헤매던 이를 참으로 만나게 되었다.

12) <九日閑居>詩.

13) 冷煖無定, 驟煖勿棄錦衣; 貴賤無常, 驟貴勿捐故友.(《荊園小語》)(談文煇 編, 《修身古訓》(臺北: 臺灣中華書局, 1980), 71쪽에서 재인용)

14) 孟二冬, 《陶淵明集譯注》(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6), 21쪽.

서로 만나면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샘솟듯 넘쳐나,
이윽고 집을 이웃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明의 黃文煥은 《陶詩釋義》 卷一에서 四言詩 <答龐參軍> 六首를 두고,

“이 여섯 장의 시는 기상이 우렁차다. 《詩經(三百篇)》을 가장 닮아있다.”¹⁵⁾

라고 극찬했다. 또 淸의 蔣薰은 《評陶淵明詩集》 卷一에서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하여,

“서로 만남이 너무 늦었음을 한탄한다. 서로 이별함이 너무 먼 것을 한탄한다. 그리움이 간절하고, 그리운 정이 글 가운데 넘쳐흐른다. 《長沙公詩》를 읽어보면, 참으로 天淵함을 알 수 있다.”¹⁶⁾

라고 말했고, 그 문체에 대해서는

“詞는 곧되 意는 완곡하니, 그것이 자연스러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杜甫가 말한 「陶謝不枝梧(陶淵明과 謝靈運의 시는 가히 대항하기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로부터 알 수 있다.”¹⁷⁾

라고 말했다. 또 近藤元粹는 《評訂陶淵明集》 卷一에서,

“居然히(온전히 혹은 평온하게) 孔子나 顏回의 즐거움을 얻고 있다. 이것이 陶淵明이 후세 詞人들보다 아득히 빼어난 이유이다.”¹⁸⁾

15) 六章氣象聲響, 最肖 《三百篇》(《陶淵明資料彙編》(北京: 中華書局, 2004, 1.) 下冊, 19쪽에서 재인용)

16) 相見恨晚, 相別恨遠, 眷戀依依, 情溢乎辭, 視<長沙公詩>, 眞天淵矣.(《陶淵明資料彙編》 20쪽에서 재인용)

17) 詞直意婉, 以其出乎自然也. 杜甫云「陶謝不枝梧」, 從此看來.(上同)

라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孔子와 顏回 사이의 깊은 情誼에 비교하기도 했다. 이 작품 속에서 도연명은 방참군을 ‘同好’ 혹은 ‘懷人’이라 부르고 있다. 뜻이 같은 사람, 마음속으로 찾아 헤매던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고달픈 人生行路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우정이다. 그 어떤 시대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는 역시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법이며, 그때 느끼는 감정이 우정이다. 《左傳》에,

“인심이 서로 다른 것은, 마치 그 얼굴이 서로 다름과 같다.”¹⁹⁾

라는 기록이 보인다. 斯波六郎은 이를,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얼굴이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²⁰⁾

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르므로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세상에서 그 차별성이 강조될 때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도연명은 진심으로 방참군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방참군에 대하여, “서로 만나면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고, 그래서 “집을 이웃하여 살아가게 된 기쁨이 있다.”고 했다. 도연명은 같은 시 제3수에서도 방참군을 두고, 마찬가지로 ‘懷人’이라고 부르며, ‘부지런히 덕업 쌓기를 즐겨 위하는(欣德孜孜)’ 인물이라고 묘사함으로써, 그의 방참군에 대한 깊고 두터운 우정을 드러내었다. 그는 방참군과 더불어 술을 마셨고, 시를 지었으며, 진실한 말을 토로했고, 하루라도 못 만나면 그리워지는 우정을 지녔다. 이

18) 居然得孔、顏之樂，是淵明之所以超絕於後世詞人。(《陶淵明資料彙編》 21쪽에서 再引用)

19) 《左傳·襄公三十一年》：“人心之不同，如其面焉。”

20) 斯波六郎 著，拙譯，《中國文學 속의 孤獨感》(서울: 東文選, 1992), 12-13쪽.

는 도연명이 난세 속에서 참다운 인간의 정을 얼마나 갈망했고,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자적의 경지를 추구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준다. 오언시 《답방참군》의 서문 가운데에는 도연명이 방참군에 대하여,

“거듭 그대가 보내온 시를 읽어도, 읽기를 그만 둘 수가 없다. 이웃이 된 이래로 다시 겨울과 봄이 오게 되었고, 진지하고 즐거운 대화는 우리를 홀연히 좋은 친구로 만들어주었다. 속담에 말하기를, ‘몇 번 만나는 동안에 오래 사귄 친구처럼 되었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의 우정은 또한 이보다 훨씬 더 깊고 돈후한 것이 아니었던가?”²¹⁾

라고 하면서 그의 간절한 정을 표현한 기록이 보인다. 그는 오언시 중의 시구들 속에도, “그들 사이의 즐거운 대화에 속된 흐름이 없었으며, 그 내용이 모두 성인의 遺篇 같은 고매한 것이었다.”²²⁾라고 했으며, “어찌다 몇 말의 술이라도 생긴다면, 한가로이 마시면서 스스로 즐겁게 지냈다.”²³⁾라고도 했다. 이와 같은 시구들로부터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매우 깊은 것이었음을 가히 짐작하게 된다.

이제 다시 <乞食>시를 살펴본다.

飢來驅我去, 不知竟何之. 行行至斯里, 叩門拙言辭.
主人解余意, 遺贈豈虛來. 談諧終日夕, 觴至輒傾杯.
情欣新知歡, 言咏遂賦詩. 感子漂母惠, 愧我非韓才.
銜戢知何謝, 冥報以相貽.

굶주림이 나를 마구 내몰고 있었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만 할지 나는 몰랐다.

21) 三復來貺, 欲罷不能. 自爾隣曲, 冬春再交, 款然良對, 忽成舊游. 俗言云: “數面成親舊”, 況情過此者乎?(孟二冬, 같은 책, 77쪽.)

22) 談諧無俗調, 所說聖人篇.

23) 或有數斗酒, 閑飲自歡然.

가고 또 가다가 마침내 이 마을까지 이르게 되어,
 막상 대문을 두드리긴 했지만 말은 어눌하기 그지 없었다.
 주인은 내가 왜 찾아오게 되었는지 금새 알아차려서,
 필요한 것 주었으니 어찌 헛걸음질 친 것이라?
 하루해 저물도록 정겨운 대화 나누었으며,
 술잔을 건네노라면 서로 즉시 비우곤 했다.
 새로운 벗 사귀는 즐거움 얻었으니 마음 기쁘기 한량없었고,
 말로 읊조리다 마침내 그것은 시로 되어 나타났다.
 그대의 은혜 한신에게 베풀어준 漂母 같은 것임을 내 깊이 느끼고 있지만,
 다만 부끄러운 것은 내게 韓信 같은 재능이 없다는 점.
 마음 깊이 간직하지만 사례할 길 없으니,
 冥界에서나 이 은혜 갚을 수 있으리라.

이 시는 극빈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아름답고 고매한 우정을 진솔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가난이 죄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가난은 분명 이 시에서처럼 사람을 문밖으로 내몰게 할 수 있다. 가난을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는 유지할 수 있는 淸貧과 그조차도 불가능하게 하는 赤貧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지금 도연명은 적빈에 의하여 내몰리고 있다. 孔子가 陳나라에서 絕糧의 상태에 이르고, 따르던 사람들이 병들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子路가 분개하여 “군자도 곤궁할 때가 있는가?”라고 물었던 상황과도 비슷하다. 공자는 그때 저 유명한 “군자는 곤궁해지면 이를 지켜나가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라는 말을 했다.²⁴⁾ 바로 이 공자의 가르침처럼 도연명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운유하고 절제 있는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

도연명과 주인은 이 참담한 상황을 오히려 아늑하고 정겨운 경지, 자적의 세계로 이끌어가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심전심의 경지이다.

24) 《論語·衛靈公》篇: “在陳絕糧, 從者病, 莫能興. 子路慍見曰: 君子亦有窮乎. 子曰: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

주인은 도연명이 걸식하러 올 수밖에 없었던 곤경을 당장 알아차렸을 것이고, 도연명은 주인의 그 마음을 즉각 알아차렸다. 《修身古訓》 가운데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우정에 관한 말은 이와 같은 상황과 가장 적합하게 어울린다.

“친구가 찾아와서, 무언가 이야기할듯하다가 또 못하면서 머뭇거리는 눈치를 보이게 되면, 이는 반드시 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나를 찾아왔지만 차마 입을 열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할 때 나는 응당 텅 빈 마음으로 먼저 물어야 할 것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물리쳐서는 안 된다.”²⁵⁾

명의 鍾伯敬은 이 작품에 대하여,

“비분함이 없다는 점에서 기묘하다. 또 조롱도 아니다. 그저 평범하고 담담한 일을 기록한 것일 뿐인데도, 높고 두텁고 깊다.”²⁶⁾

라고 말했다. 이는 도연명과 주인이 지닌 인격의 깊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고매한 경지를 지적한 말이다. 명의 譚元春은 또 이 작품에 대하여,

“「飢來驅我去」, 「叩門拙言辭」, 「主人解余意」, 「冥報以相貽」라는 네 시구를 읽어보면, 廉恥忠厚함이言外에 넘쳐흐른다. 주는 자와 받는 자에 있어서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淵明은 있으면 終日 손님을 머물게 하고, 없으면 짐집마다 더듬어 찾아가며 걸식했다고 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받는 자와 주는 자 사이에, 한결같이 理致와 趣向이 그 사이에 서려져 있다.”²⁷⁾

25) 親友見訪, 忽有欲言不言之意, 此必有不得意事, 欲求我而難於啓齒者; 我便當虛心先問之, 力之所能, 不可推諉. (荊園小語) 談文烜 編, 《修身古訓》(臺北: 臺灣中華書局, 1980), 72쪽.

26) 明, 鍾伯敬, 譚元春評選, 《古詩歸》卷9. : “妙在無悲憤, 亦不是嘲戲, 只作尋常素位事, 便高, 便厚, 便深.”(《陶淵明資料彙編》, 下冊, 66-67쪽에서 재인용.)

27) 讀「飢來驅我去」, 「叩門拙言辭」, 「主人解余意」, 「冥報以相貽」四語, 廉恥忠厚,

라고 말했다. 도연명이 주인에게 자신의 감사한 정을 韓信을 도와준 漂母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자신의 재능이 한신에 훨씬 못 미쳐서 사후에나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서, 도연명의 겸손을 발견한다. 이 시에서 도연명은 새로운 벼를 사귀는 즐거움을 '新知歡'이라고 하고, 그 속에서 그 자신의 심정이 欣然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것이 시로 되어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통스러운 난세상황, 기근이 그를 대문 밖으로 내모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연명이 끝까지 갈망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벼들과의 사귀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의 추구였고, 인간의 고매한 품격에 대한 절조의 견지였으며, 그것이 바로 그가 염원했던 우정 속의 자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IV. 은둔 속의 자적

도연명은 그의 작품 전반을 통하여 은둔을 노래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그의 시는 은둔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은둔의 처소가 전원이어서 田園詩라고 부를 뿐, 실지로 그가 추구한 것은 塵世로부터의 철저한 은둔이었다. 은둔의 역사가 유구한 중국에서 도연명은 물론 그 은둔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많은 작품들을 통하여 伯夷叔齊 등과 같은 은둔의 선현들에 대한 찬사와 경의를 표현했다.

은둔은 물론 정치현실로부터의 은둔이고, 관료세계로부터의 은둔이다. 그러나 그는 실지로 농촌에서 살아갔고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주어진 납세의 의무도 감당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의 은둔은 다분히 관념적인 은둔, 상상 속의 은둔일 가능성이 많다. <讀山海經> 13수나 무릉도원의 이상향을 노래한 <桃花源記>를 보면, 그가 관념적으로 혹은 상상 속에서 강

溢於言外, 覺與者受者, 行逕不同. 昔人稱淵明有則終日留賓, 無則沿門乞食, 有無取與之間, 皆有理取存乎其間.(《陶淵明資料彙編》, 下冊, 67쪽에서 재인용)

하게 은둔을 추구하고 염원했음을 엿볼 수 있다.

‘隱遁自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은둔은 자적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여기서는 몇 수의 작품만을 선택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은둔 속의 자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九日閑居>詩를 본다.

世短意常多, 斯人樂久生. 日月依晨至, 舉俗愛其名.
露淒喧風息, 氣澈天象明. 往燕無遺影, 來雁有餘聲.
酒能祛百慮, 菊解制頽齡. 如何蓬廬士, 空視時運傾.
塵爵恥虛罍, 寒華徒自榮. 斂襟獨閑謠, 緬焉起深情.
棲遲固多娛, 淹留豈無成.

인생은 짧고 수심은 언제나 이리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오래 살기 즐겨한다.
세월은 순서대로 흐르고 흘러 重九의 날 이르게 되었으니,
은 세상 풍속이 그 이름을 사랑한다.
이슬은 차가워지고 따스한 바람은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서,
이제 날씨는 해맑고 하늘은 환하여 푸르다.
떠나버린 제비들은 이미 자취 찾아볼 수도 없고,
돌아오는 기러기들만 끼룩끼룩 울어댈 뿐.
술은 많은 근심걱정 없앨 수 있다 하고,
국화는 일그러지는 연령 억누를 수 있다 한다.
어찌하리, 蓬廬의 貧士여!
이 아름다운 重九의 날이 부질없이 사라짐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먼저 앗은 술잔은 텅 빈 술독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찬 계절 가을의 꽃 국화는 부질없이 스스로 활짝 피어있구나.
나는 옷깃 여미고 홀로 한가로이 시를 읊고 있노라니,
아득히 깊은 정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고요히 은둔하며 사는 삶이지만 참으로 즐거움이 많을지니,
오랜 은둔생활에 어찌 이룬 바 없다 할 것인가?

孟二冬은 이 작품을 두고,

「九日是 곧 음력 九月九日, 重陽節이다. 이때 국화가 활짝 피어, 옛 사람들은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으며, 이렇게 술을 마시면 가히 수명을 늘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연명은 술에 대하여 남다른 기호가 있었으며, 그는 《讀山海經》 제5수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달리 필요한 바가 없다. 오직 술과 장수뿐이다.(在世無所須, 惟酒與長年.)”라고 노래했다. 그렇지만 이 重陽節이라는 명절을 맞아, 그는 정원 가득히 자라고 있는 국화꽃을 바라보면서도, 마실 수 있는 술이 없었다. 아마도 이미 생활이 매우 어려워져서, 술을 빚을 쌀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리하여 도연명은 심히 감개하여, 이 시를 지어 그 정회를 기탁했을 것이다. 이 시 가운데 보이는 ‘空視時運傾’, ‘淹留豈無成’ 등의 시구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설사 아무리 시인 도연명이 한겨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내심은 결코 완전히 평정을 찾지 못했으니, 그는 여전히 특히 관심을 기울이던 바가 있었고, 추구하던 바가 있었던 것이다.»²⁸⁾

라는 평했다. 이 평에서 보듯이 도연명이 세상에서 가장 염원했던 것 두 가지가 바로 長壽와 飲酒였다. 그것은 그가 비록 난세에 처하여 고달프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어진 생명을 몹시 사랑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가 술 마시기를 사랑했던 것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극대화함으로써 주어진 생명을 가능한 범위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는 술 그 자체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술을 통한 초현실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했다.²⁹⁾ 그 초현실의 세계 역시 궁극적으로는 현실세

28) 孟二冬, 같은 책, 52-53쪽.

29) 村上嘉實 著, 같은 책, 30쪽. 村上嘉實은, “홀드만 씨는 상기 논의 중에서, 도연명에 대하여 언급하고, 도연명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환락을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술을 사용하고 있는 점, 그에게 있어서 술이 이 세상의 비애와 환멸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스페로가 竹林七賢에 대하여, 술은 그들을 세상의 밖에, 그리고 그 위에(en dehors et andes du des choses et monde) 두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六朝人이 사용하던 술에, 사상적인 의미를 발견한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작품에 나타난 자적의 의미를 飲酒自適이라는 부문으로 설정하여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음주야말로 인간이 가장 손쉽게 자적의 경지를 터득하고 향유하기 위해 고안해낸 경제적이고 유효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의 한계로 인하여 추구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³⁰⁾

그가 은둔을 통하여 얻은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이 주는 심오한 의미를 깊이 체득하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었다. 이 작품에서 도연명은 이를, ‘棲遲固多娛’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娛’야말로 은둔 속의 자적 혹은 한적 속의 자적이 주는 이름답고 평화로운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重九라는 이름을 좋아한 것도 가을의 경치와 가을이라는 계절을 포함한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국화는 그 아름다운 가을의 자연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또 그가 아름다운 가을의 자연을 사랑하고 이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은둔을 통한 한적한 삶을 영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가 되어, 어쩌면 ‘淹留’의 성취가 되어, 후세에까지 전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적이란 이처럼 은둔과 그를 통한 한적이라는 전제 속에서 가능해지는 고요한 경지이다. 그 한적이 인생 전반을 고요히 응시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하고, 그를 통하여 자적의 세계를 열어가게 한다. 도연명은 바로 이 자적을 누리기 위하여 옥망으로 얼룩진 관료사회를 떠나갔고, 풍진으로 혼잡한 세상을 멀리했다. 宋의 湯漢은 이 작품에 대하여,

“空視時運傾”은 역시 易代之事를 가리킨다. 淹留無成은 시인 자신에 대한 말이다. 자금 이를 거꾸로 뒤집어본다면, 저기서 얻지 못한 것은, 여기서 얻게 된다는 말이 된다. 뒤에 나오는 ‘棲遲詎爲拙’ 역시 마찬가지다³¹⁾

라고 말했다. 또 淸의 陳祚明은 이 작품의 풍격에 대하여,

“起意가 한적하고 그윽하다. 그중에 寫景·寫情했는데, 모두 맑게 표출되

30) “我無騰化術, 必爾不復疑.”(<形影神>의 제1수<形贈影>)

31) 「空視時運傾」, 亦指易代之事. 淹留無成, 騷人語也. 今反之, 謂不得於彼, 則得於此矣. 後「棲遲詎爲拙」亦同. (《陶淵明資料彙編》, 下冊, 45쪽에서 再引用.)

고 있다. 오랜 은둔생활에 어찌 이룬 바가 없다 할 것인가(淹留何所成)?
人生이란 본래 質朴[有素]한 것이다. 「日月」二句는 作意가 새롭다. 九는
久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다.”³²⁾

라고 말했다.

다시 그의 은둔자적을 노래한 작품인 <歸園田居五首> 중의 제1수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少無適俗韻, 性本愛丘山. 誤落塵網中, 一去三十年.
羈鳥戀舊林, 池魚思故淵. 開荒南野際, 守拙歸園田.
方宅十餘畝, 草屋八九間. 榆柳蔭後檐, 桃李羅堂前.
曖曖遠人村, 依依墟里煙. 狗吠深巷中, 鷄鳴桑樹巔.
戶庭無塵雜, 虛室有餘閑. 久在樊籠裏, 復得返自然.

나 어려서부터 세속과 잘 어울리는 기질이 없었으니,
본성이 산만을 좋아했다.
세속 그물 속으로 잘못 떨어지고 말았으니,
한번 세월 흘러 어느덧 십삼 년이 흘러가버렸다.
새장에 갇혀 사는 새는 옛 숲을 그리워하고,
작은 못에 갇혀 사는 물고기는 옛 큰 못을 그리워한다.
남쪽 교외 끝에서 밭 갈고자 하니,
愚拙을 지키고자 전원으로 돌아왔다.
집 주변 농토는 十餘畝이고,
초가집은 八九間이다.
느릅나무 버드나무는 뒷 처마에 그늘을 드리우고,
복숭아나무 오얏나무는 대청 앞 마당에 늘어서 있다.
저 멀리 촌락은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듯 아니 보이는 듯 하는데,
골뚝에서는 연기가 하늘하늘 날아오른다.
개는 깊은 골목길에서 짖어대고,

32) 起意閒遠, 中寫景寫情, 並清出. 淹留何所成? 人生固有素也. 「日月」二句作意新
矣. 九, 久也, 固愛之.(《陶淵明資料彙編》, 下冊, 46쪽에서 재인용)

닭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울어낸다.
 마당에는 세속의 잡다한 먼지 하나 없으니,
 텅 빈 집에는 한가로움만이 넉넉할 뿐.
 나는 오랫동안 새장 속에 갇혀 있었다가,
 이제야 비로소 자연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맹이동은 이 작품에 대하여,

“이 연작시는 대체로 도연명이 팽택령의 직위를 버리고 은거한 그 다음 해, 곧 짚 安帝 義熙 2년(406)에 지은 것이며, 그 당시 그의 나이 42세였다. 겨우 80여일 동안 彭澤을 지낸 도연명은, 이미 실로 도저히 관료사회 속의 오염된 분위기와 세속의 속박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굳은 결심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귀隱하여 전원에서 躬耕했으며, 그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出仕하지 않았다. 관료사회를 벗어나는 흥가분함, 자연으로 돌아가는 기쁨, 또한 맑고 고요한 전원, 순박한 사람들과의 사귄, 공경의 체험 등은 그로 하여금 이 연작시가 걸출한 전원시가 되게 했으며, 또한 집중적으로 도연명의 眞朴·靜淡·曠達한 풍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했다.”³³⁾

라고 평했다. 도연명은 이 작품 가운데서 은둔 이전의 그 자신을 두고 舊林을 그리워하는 羈鳥, 故淵을 그리워하는 池魚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 그것은 속박되어 부자유한 존재이며, 당연히 자적할 수 없는 존재이다. 십삼년이라는 긴 세월을 속박 속에서 살아왔다고 후회한다. 설사 우줄하다는 世人들로부터의 비난을 받는다하더라도, 감연히 자유와 자적이 있는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이른바 ‘反自然’이다.

비록 고달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땀 흘려 노동하는 가운데 얻는 육신과 정신의 건강을 그는 염원했다. 이 작품 가운데 보이는 전원의 정경들은 그의 그러한 염원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느릅나무와 버드나무가 집 뒤에서 자라며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고,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는 대청 앞

33) 맹이동, 같은 책, 55쪽.

마당에서 늙어서 자라고 있다. 멀리 촌락이 보이고, 굴뚝 연기가 하늘하늘 날아오르는 정경, 개가 짖어대고 닭이 울어대는 정경은 참으로 옛날 안락하고 평화로운 시대의 대명사로 불리던 華胥之國을 연상하게 한다. 明의 黃文煥은 이 작품에 대하여,

“「反自然」三字는, 園田으로 돌아가는 大本領이자 諸首의 總綱이다. 「絶塵想」, 「無雜言」은 自然으로 돌아가는 氣象이다. 「衣沾不足惜, 但使願無違」이라는 두 시구는 自然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다. 生死에 있어서는, 이는 天地自然의 運이며, 一毫라도 인간의 힘이 얻어내거나 줄 수 있는 바가 아니다. 「終當歸空無」라고 한 것은, 하나하나 모두 自然의 섭리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田園에서 창문 아래에서 늙어죽고, 평안히 천수를 누리니, 一切仕路에서의 刑辱과 다르다. 죽어서도 마땅한 곳을 얻을 수 있으니, 하물며 살아서랴? 이를 안다면 清淺을 만나 몸을 씻고, 雞酒를 얻어 문득 취하며, 밤새워 새벽에 이르도록, 기약하는 바를 누리게 되니, 이는 自然이 주는 복락이다. 어찌 가히 일각이나마 놓칠 수 있을 것인가?”³⁴⁾

라고 말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마땅히 얻어야 할 곳을 얻는 자적의 경지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피할 것인가? 대다수가 전자의 길을 걸어갈 때, 도연명은 과감하게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위대한 시인으로 전해지게 되는 도연명을 산생하게 했다.

34) 「反自然」三字, 是歸園田大本領, 諸首之總綱. 「絶塵想」、「無雜言」, 是返自然氣象. 「衣沾不足惜, 但使願無違」, 是反自然方法. 至於生死者, 天地自然之運, 非一毫人力所得與. 曰「終當歸空無」, 一一以自然聽之. 田園中老死闢下, 得安正命, 與一切仕路刑辱不同, 死亦得所, 況存乎? 知此則清淺遇濯, 雞酒輒飲, 徹夜至旦, 所期以享用, 此自然之福者, 何可一刻錯過?(《陶淵明資料彙編》, 下冊, 49쪽에서 재인용.)

V. 체념 속의 자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마음대로 되는 않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이고,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유한한 존재이다. 또 자식은 부모 말 안 들으려고 태어났다고 하고, 친구도 신의를 저버리기가 십상이다.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서히 체념을 배우게 된다. 예컨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본다든가, 보다 더 못한 경우를 상정해봄으로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체념하게 된다. 도연명 역시 울울불락하게 하는 난세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체념을 통한 자적의 경지를 터득해나가고자 노력했다. 그는 《責子》시 가운데서 자신의 염원과 어긋나게 자라고 있는 자식들에 대하여 탄식하다가 결국 술을 마시고 체념하고자 하며, 그 체념을 통하여 자적을 추구하고자 한다. 맹이동은 이 시에 대하여,

“이 시는 대체로 풀 安帝 義熙 4년(408). 陶淵明의 나이 44세 되던 해에 지어진 것이다.

責子は 곧 자식을 책망하는 것이다. 시인 도연명은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어조로 자식들이 향상을 추구하지 않아, 그 자신의 소망하는 바, 곧 그들을 면려하여 好學하고 분발하여 정진하게 함으로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와 차이가 너무 크다고 책망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 도연명의 자식들에 대한 深厚하고 眞摯한 骨肉之情이 드러나고 있다.”³⁵⁾

라고 평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평범한 인생의 진리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위대한 시인 도연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비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35) 맹이동, 같은 책, 183쪽.

白髮被兩鬢, 肌膚不復實. 雖有五男兒, 總不好紙筆.
 阿舒已二八, 懶惰固無匹. 阿宣行志學, 而不愛文術.
 雍端年十三, 不識六與七. 通子垂九齡, 但覓梨與栗.
 天運苟如此, 且進杯中物.

하얀 백발이 이미 두 귀밑머리 덮고 있고,
 피부도 더 이상 실하지 못하다.
 내게 비록 다섯 아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공부하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舒는 이미 십육 세이지만,
 그러나 게으르기가 필적할 바 없다.
 宣은 십오세가 되는데,
 책읽기만 좋아하지 않는다.
 雍과 端은 둘 다 나이가 십삼세인데도,
 六과 七조차 가릴 줄 모른다.
 通은 아홉 살인데,
 오로지 하는 일이라고는 배와 밤을 찾아먹으려는 것뿐이다.
 내게 주어진 天運이 이런 것일 뿐일진대,
 자, 그저 술잔이나 들기로 하자.

志學 곧 志於學은 十五歲를 가리킨다. 孔子는 그의 나이 십오 세 되던 해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고 말했다.³⁶⁾ 그 이후로부터 십오 세가 학문에 뜻을 품는 志學之年이 되었다. 자식은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불여의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태어난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위대한 시인 도연명에게 있어서도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 시 속에 나타나 있듯이 그의 다섯 아들은 모두 도연명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태연자약하다. 이는 체념 속의 자적이라 이를 범하다. 이 세상을 살

36) 《論語·爲政》篇: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부딪치곤 하는가? 그럴 때 그래도 더 고통스럽고 더 역경에 처한 경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로 받고 체념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적을 추구하고자 한다.

예컨대 도연명의 시에서 달리 체념 속의 자적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통한 그것일 것이다. 도연명은 죽음에 대하여 남달리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는 “예로부터 누구나 죽기마련,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속이 탄다.”³⁷⁾라고까지 말하면서, 생을 사랑했던 인물이다. 그렇지만 그 또한 인생의 유한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체념함으로서 생의 자적을 누리하고자 했다. <飲酒> 제15수를 그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貧居乏人工, 灌木荒余宅. 班班有翔鳥, 寂寂無行迹.
宇宙一何悠, 人生少至百. 歲月相催逼, 鬢邊早已白.
若不委窮達, 素抱深可惜.

가난하게 살다보니 일손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
灌木들이 집 주변에 가득 자라고 있다.
뚜렷한 모습의 새가 날고만 있을 뿐,
사람의 흔적 전혀 없어 쓸쓸하기만 하다.
저 우주는 그 얼마나 아득히 멀고 드넓은가!
우리 인생은 백세 사는 자도 드물구나.
세월이 서로 빨리 가라고 재촉하니,
귀밑머리는 벌써 허영게 세어버렸다.
만약 곤궁과 영달을 天意에 맡겨두지 않는다면,
평소 품었던 포부 심히 애석하게 되고 말 것이다.

맹이동은 이 시에 대하여,

“이 시는 거친 집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정경과 노쇠가 장차 다가오고 자 하는 슬픔을 묘사했다. 그러나 시인은 固窮으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는

37) <기유년 중양절에(己酉歲九月九日)>: “從古皆有沒, 念之中心焦.”

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만약 자신의 숙원을 위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깊이 통석한 일이라고 말한다.”³⁸⁾

라고 평했다. 우주는 참으로 아득하고 멀며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기 그지 없다는 이 대비를 통하여 도연명은 체념을 배우고 터득하고자 한다. 그가 체념하고자 하는 것은 부귀공명, 입신출세, 영달 등 세속적 욕망에 대한 갈망이다. 그 대신 그는 영원한 도를 추구하고자 했다. 이 작품 가운데에 나타난 ‘素抱’가 바로 그것이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식인의 참된 의무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曾子가 말했던 ‘任重而道遠’³⁹⁾의 경지에 비견될만한 지난하고 지엄한 포부였다. 그래서 그는 출사를 거절하거나 포기하고 은거궁경했으며, 그 가운데서 자적하는 삶을 추구했다. 그것은 그가 독자적으로 발견해낸, 주어진 생을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게 꾸려나가는 삶의 방법이었다.

VI. 자연 속의 자적

老子가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道法自然)”⁴⁰⁾이라고 말한 이후로부터, 자연은 도를 능가하고 초월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자연은 신의 존재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율법이고 진리가 된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났고 자연에서 살아가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흠에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자 한계이다. 또한 小尾郊一은 《중국 문학에 나타난 자연과 자연관》의 서문에서,

38) 맹이동, 같은 책, 165쪽.

39) 《論語·泰白》: “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40) 《老子》 25장.

“동서양을 불문하고 문학과 자연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예부터 문학에 있어서 자연을 노래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으며, 문인들 가운데서 자연을 노래하지 않았던 사람이 적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문학을 통하여 살펴볼 때, 중국인들은 자연이야말로 만물의 땅이며, 자연에서만 참된 아름다움이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생각된다.”⁴¹⁾

라고 지적한다. 자연은 어머니의 품안처럼 아름답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다. 오직 거기에만 삶의 생생한 숨결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생의 원기를 얻어 살아간다. 모든 것이 흙에서 나오고 자연에서 나온다. 거기서부터 육신의 먹이가 나올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나오는 것이다. 자연은 특히 난세에 처하여 山林江海 혹은 林泉、山水 등의 형태로 중국문학에 나타나는 은둔의 장소이다. 은사들은 우리가 도연명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 가운데서 육신은 고달프되 정신은 평화로운 삶, 곧 자적의 삶을 살아갔다. 小尾郊一은 같은 책에서,

“그러나 일단 은둔하게 되면 은둔생활, 다시 말하여 산중생활이 설사 아무리 고난으로 가득 찬 것일지라도 시인하고 미화하는 것이 당연한 추세일 것이다. 이리하여 은둔생활을 찬미하는 사상, 곧 산중생활을 찬미하는 사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마침내 그와 같은 생활의 경지인 산중을 찬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가게 된다.”⁴²⁾

라고 말했다. 도연명 역시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적의 의미를 터득해 나가고 있었으며, 그의 작품 가운데서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의 품속에서 아늑한 평온을 추구하는 정경이 나타나고 있다. 《사천에서 유람하며(游斜川)》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한편의 아름다운 산문이라 할 수 있는 서문이 병기되어 있다.

41) 小尾郊一 著, 拙譯, 《中國文學 속의 自然觀: 原題는 “中國文學에 나타난 自然과 自然觀”》(春川: 江原大學校出版部, 1988), 序文.

42) 小尾郊一, 같은 책, 195쪽.

“辛丑年 五月 五日, 날씨가 맑고 온화하며, 風光景物이 고요하고 아름다워서, 이웃에 사는 두셋 노인들과 더불어, 함께 斜川으로 놀러갔다. 길게 흘러가는 시냇물 곁에 서서, 曾城山을 바라본다. 魴魚와 鯉魚는 저녁 무렵 비늘을 드러내고 뛰어오르고, 물새는 따뜻한 날씨 속의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 저 남쪽의 산은 명실이 이미 오래되어서, 더 이상 이를 위하여 차단하지 않으리라. 저 曾城山은 그 곁에 이어지는 산이 없어, 홀로 수려하게 평평한 못 속에서 솟아 있다. 저 신선이 산다고 하는 崑崙의 曾城을 아득히 생각하노라면, 더욱 눈앞에 있는 이 산의 아름다운 이름을 사랑하게 된다. 이처럼 흔연히 曾城山을 마주 바라보며 경치를 감상하지만, 그래도 흥을 다하기 부족하기에, 이리하여 즉흥적으로 시를 짓고, 情懷를 발산한다. 세월의 흘러감을 슬퍼하고, 내 인생의 머물지 못함을 깨닫는다. 각자가 나이, 籍貫을 기록하고, 아울러 이 잊기 어려운 하루를 기록한다.(辛丑正月五日, 天氣澄和, 風物閑美, 與二三隣曲, 同游斜川. 臨長流, 望曾城, 魴鯉躍鱗于將夕, 水鷗乘和以翻飛. 彼南阜者, 名實舊矣, 不復乃爲嗟嘆. 若夫曾城, 傍無依接, 獨秀中阜, 遙想靈山, 有愛嘉名. 欣對不足, 率爾賦詩. 悲日月之遂往, 悼吾年之不留. 各疏年紀, 鄉里, 以記其時日.)”⁴³⁾

맹이동은 이 시에 대하여,

“이 시는 宋 武帝 永初 2년(421), 도연명의 나이 57세 되던 해에 지어진 것이다. 시가는 斜川 일대의 자연풍경을 찬미하는 동시에, 시인의 만년에 접어들어 생겨나는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비록 及時行樂의 소극적이고 불만스러운 정서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시인의 孤高不群하고 堅貞挺拔하는 정서와 지조는 卓然하여 가히 불만하다.

이 시의 서문은 한편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山水遊記이다. 言情並茂하고, 詩情畫意가 가득 차 있다. 시가와 더불어 서로 찬연히 빛을 발하고 있으며, 매우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다.”⁴⁴⁾

라고 평했다. 이제 그 시를 살펴본다.

43) 맹이동, 같은 책, 63쪽.

44) 上同.

開歲倏五日, 吾生行歸休. 念之動中懷, 及辰爲茲游.
 氣和天惟澄, 班坐依遠流. 弱湍馳文鮪, 閑谷矯鳴鷗.
 迥澤散游目, 緬然睇曾丘. 雖微九重秀, 顧瞻無匹儔.
 提壺接賓儷, 引滿更獻酬. 未知從今去, 當復如此不.
 中觴縱遙情, 忘彼千載憂. 且極今朝樂, 明日非所求.

새해도 빨리 흘러 벌써 오월 오일 단오절이 되었고,
 내 생명도 장차 영원한 휴식 쪽으로 다가가려 하고 있다.
 이를 생각하노라면 가슴속이 격렬히 뛰게 되어,
 이 좋은 날을 맞아 봄날 유람을 떠나간다.
 날씨는 따사롭고 하늘은 맑으며,
 멀리 흘러가는 강가에서 순서대로 앉아 있다.
 천천히 흐르는 개울에는 紋鮪이 치달리고,
 한가한 골짜기에는 우는 물새 높이 난다.
 드넓은 호수 아득히 멀리 바라보기도 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曾城山 바라보기도 한다.
 비록 崑崙山 九重의 수려함에는 못 미치나,
 주위를 돌아보면 이 산과 필적할 다른 산이 없다.
 술 주전자 들고 같이 유람 온 벗들에게 술 권하니,
 술잔에 가득가득 부어준다.
 지금 이후로,
 다시금 이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술잔을 반쯤 비우며 아득히 초연한 정서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며,
 저 천년의 근심을 잊어버린다.
 자, 이제 이 아침의 즐거움을 만끽해야만 하리니,
 내일이 어떨지는 내가 구할 수 있는 바 아니리라.

도연명은 이 작품 서두에서, “새해도 빨리 흘러가 벌써 오일이 되었고, 내 생명도 장차 영원한 휴식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생무상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그 무상한 인생의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그는 자연의 품안으로 안기고자 했다. 그는 ‘及辰爲茲游’라고 노래했다. 及辰의 及은 及時行樂의 及이고, 及辰의 辰은 良辰美景의 辰이다. “이 좋은 날을 맞아 봄날의 유

람을 떠나간다.”라고 해석한다. 그가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고 이를 큰 기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 다섯 글자를 통하여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벗과 더불어 술잔을 나누면서 曾城山을 바라보는 도연명은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그가 진실로 염원했던 것은 이처럼 자연 속에서 자적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것은 李白이 <獨坐敬亭山>에서 노래한 경지와도 비슷하다. 이백은 敬亭山이라는 자연을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 것(相看兩不厭)’⁴⁵⁾이라고 말했다. 또 그것은 孤山 尹善道の 시조에 나타난 경지와 비슷하다. 고산은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⁴⁶⁾라고 노래함으로써, 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자연을 인식하고 있다.

도연명은 이 작품 가운데서 “且極今朝樂, 明日非所求.”라고 노래했다. 자, 이제 이 아침의 즐거움을 다 하리니, 내일이 어떨지는 내가 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했다. 이는 물론 그 자신이 항상 절감하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노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거의 모든 시인들이 그러했듯이, 그가 얼마나 세상과 인생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작품 가운데 나타나는 천년의 근심을 잊게 하는 아득히 초연한 정서의 세계, 술을 통하여 이끌어지는 정서의 세계야말로 그가 추구해온 자적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구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한계와, 이를 초극하고자 하는, 인생 최대한의 몸부림이라 할 及時行樂의 관념을 발견하게 된다.

45) 뭇새들이 하늘 저 높이 고요히 날고 있다. 흰 구름이 홀로 閑暇로이 떠돈다. 서로 바라보고 있어도 싫증나지 않는 것은, 오직 저 敬亭山 뿐이다.(衆鳥高飛靜, 孤雲獨居閒. 相看兩不厭, 只有敬亭山.)

46)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뉘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삼도 우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¹⁾

VII.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도연명시에 나타난 자적의 의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을 우정과 은둔, 체념, 자연 등의 주제와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했다.

자적이란 자아가 판단하여 결정한 자아에게 가장 적합한 경지이다.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은 자적의 주체가 자신임을 보여준다. 《장자·제물론》편 가운데에 나타난 예, 사람과 미꾸라지와 원숭이 사이의 거처에 대한 견해, 사람과 사슴과 지네와 올빼미와 까마귀 사이의 음식에 대한 견해, 원숭이와 순록과 미꾸라지와 사람 사이의 미모에 대한 見解 등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 역시 자적의 의미를 근원적인 측면에서부터 생각하게 한다.⁴⁷⁾ 정답은 없다. 모두 각자가 알아서 결정해야만 한다. 金昌煥은 《陶淵明의 文學과 思想》 가운데서,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변절하기 쉽다. 그러나 도연명은 참된 삶의 이치를 추구하면서 진지하고 일관된 가치관을 견지하였다. 그것은 현실과 사회를 중시하는 유가사상(儒家思想)과, 자연을 숭상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도가사상(道家思想)으로부터 각각의 장점을 계승, 발전시키고 승화시킨 결과였다.”⁴⁸⁾

라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이나 그가 이루어낸 결과의 이면에 도연명이 추구하였던 자적의 경지가 숨쉬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도연명은 그가 선택한 삶의 길이 바르고 정확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난세

47) 《莊子·齊物論》篇. “且吾嘗試問乎女. 民濕寢則腰疾偏死, 鰌然乎哉. 木處則惴慄恟懼, 猿猴然乎哉? 三者孰知正處? 民食芻豢, 麋鹿食藜, 蝸蛆甘帶, 鴟鴞嗜鼠, 四者孰知正味? 猿獼狙以爲雌, 麋與鹿交, 鰌與魚游, 毛嬙麗姬, 人之所美也, 魚見之深入, 鳥見之高飛, 麋鹿見之決驟, 四者孰知天下之正色哉?”

48) 金昌煥, 《陶淵明의 思想과 文學》(서울: 乙酉文化社, 2009), 13-14쪽.

에 처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모습이다. 시인 李炯基는 <가을變奏曲>이라는 시 가운데서, “언제는 戰國時代 아닌 때가 있었던가?”⁴⁹⁾라고 노래하면서 탄식했다. 난세는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다.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난세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는 자적하는 법을 배우고 터득해야만 한다. 우리의 자적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욕망이다. 이 욕망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밑 빠진 독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난세는 또한 우리 욕망이 정도를 넘치게 흘러서 마침내 범람하는 시대, 폭발하는 시대라고 생각해도 좋다. 욕망의 최소화가 자적의 비결이다. 노자가 말한 “족함을 아는 자가 부자이다.(知足者富)”⁵⁰⁾라는 지적이야말로 자적을 추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연명이 彭澤令의 사직은 이런 의미에서 욕망의 최소화를 향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특히 빵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특히 그러할 것이다. 도연명의 시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자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읽다보니 도연명시 전반에 걸쳐 자적을 추구하는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參考文獻>

《左傳》(臺北: 藝文印書館), 1976.

楊伯峻 編著, 《論語譯註》(臺北: 明倫出版社), 1971.

余培林 註譯, 《新譯老子讀本》(臺北: 三民書局), 1982.

《莊子》, 乙酉文化社, 2010, 서울.

49) 李炯基, 《돌베개의 詩》(서울: 韓國詩人協會, 1971), 34-35쪽.

50) 《老子》 33장.

- 《陶淵明資料彙編》，下冊(北京：中華書局)，2004.
- 《晉書》(臺北：鼎文書局)，1978.
- 談文煇 編，《修身古訓》(臺北：臺灣中華書局)，1980.
- 孟二冬，《陶淵明集譯注》(長春：吉林文史出版社)，1996.
- 김육 지, 허성도·김창환·강성위 역, 《유원총보역주》(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91쪽.
-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큰사전》(서울: 삼성이데아), 1989.
- 《금성관 國語辭典》(서울: 금성교과서), 1994.
- 《東亞漢韓大辭典》(서울: 東亞出版社), 1989.
- 《中文大辭典》(臺北: 中華學術院), 1976.
- 李炯基, 《돌베개의 詩》(서울: 韓國詩人協會), 1971.
- 金昌煥, 《陶淵明的 思想과 文學》(서울: 을유문화사), 2009.
- 張基槿 編譯, 《李太白》(서울: 太宗出版社), 1993.
- 村上嘉實, 《六朝思想史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76.
- 斯波六郎 著, 拙譯, 《中國文學 속의 孤獨感》(서울: 東文選), 1992.
- 小尾郊一 著, 拙譯, 《中國文學 속의 自然觀》(春川: 江原大學校出版部), 1988.
- 小尾郊一 著, 拙譯, 《中國의 隱遁思想》(春川: 江原大學校出版部), 2008.

<中文提要>

自適是對於生命個體最適合的境界. 莊子是對自適給最明白地說明的思想家. 他通過“民濕寢則腰疾偏死, 鯁然乎哉. 木處則惴慄恟懼, 猿猴然乎哉?”他通過這樣的發問而說明: 自適是按照個體而有差別地出現. 正如村上嘉實已經指出, 老莊思想原來以亂世的哲學而出現, 通過這一思想, 自適的境界是被發現的.

陶淵明詩是後於屈原的，而開發了與屈原不同的新的方向。譬如說，屈原是死六臣這一類型的人物形象，陶淵明是生六臣這一類型的人物形象。如果我們說屈原是反抗於不正義而死去的人，則陶淵明是從不正義退幾步而像觀望江水對面的火災似地，以悲哀的心情活過的人。他們兩位詩人的作品都以嘆世爲主調，所以都可以稱爲嘆世詩人，可是比屈原，陶淵明相對地維持着委婉溫和的基調。

小尾郊一在《中國의 隱遁思想》說過：“陶淵明以最初的田園詩人而有名的，我們該注意的是：他宣言了在自然界裏的情景之中有着真理這一點。這樣的思想，雖然會有表現上的差異，可是自此而後，在中國人的自然觀裏，成立了一個傳統而繼續流下去了”在此我們可以發現陶淵明詩所能產生的自適這一境界。他在自然裏發現了美的境界，也發現了平安的心境。

在本論文裏我們努力發現友情裏的自適、隱遁裏的自適、諦念裏的自適、自然裏的自適此四個部門。這樣的分類按照個人的傾向可以分得各樣各色的，可以更仔細的。

對於友情《荊園小語》如此說過：“冷煖無定，驟煖勿棄錦衣；貴賤無常，驟貴勿捐故友。”高貴的友情應該是與貧賤無關而永遠地存在、維持才是、才寶貴。

隱遁當然是從官僚社會而逃避的，也是從黑暗政治而逃避的，可是陶淵明實地上在農村生活了，直接地參加耕種，也賦稅了，從這一點來看，他的隱遁很可能是觀念上的隱遁、想像裏的隱遁。如果我們讀了陶淵明的《讀山海經》十三首，或歌頌武陵桃源這一理想鄉的《桃花源記》，則可以知道，他在觀念上或者想像裏，強烈地追求而嚮往着隱遁的。“隱遁自適”這一句話，正好可以說明隱遁與自適之間的親密關係。幾乎陶淵明他的整個作品歌頌着隱遁，而隱遁裏追求着自適。

我們活在此世，不如意的事情時常發生。而不如意的事，常是十之八九。我們不能避免死亡，這是人生的界限。我們不能避免喫飯，這也是人生的界限。而孩子總是不聽父母話的，朋友總是背叛信義的。走着這樣的艱難人生路途之中，我們慢慢地體會着諦念的意義。譬如說換個立場而想，或者通過比我們更

不好的例子而受到安慰，等等是我們時常所能發現的諦念方法。陶淵明也是生活在鬱鬱不樂的亂世裡，努力了想得到通過諦念而可以得道的自適境界。他在《責子》詩裏，嘆息而傷心着孩子們走不喜歡好學習的路途，可是最後他學會了以飲酒而諦念的，而得到自適的這一方法。

從老子說過“道法自然”而後，‘自然’成爲超過而超越‘道’的境界了。‘自然’是像神一樣成了統治人世的不文法律，而我們也是生於自然，歸於自然。從土地裏來，往土地裏歸，這是人的界限，也是人的命運。陶淵明也是生活在自然裏，田園裏，而從自然裏學了自適的意義。幾乎他的整個作品歌頌着自然，追求着自然裏的自適這一境界。《游斜川》是屬於這一類的他的代表作品。

주제어 : 陶淵明, 自適, 自然, 隱遁, 隱居, 躬耕, 亂世, 避世